



“심리학도 自然科學의 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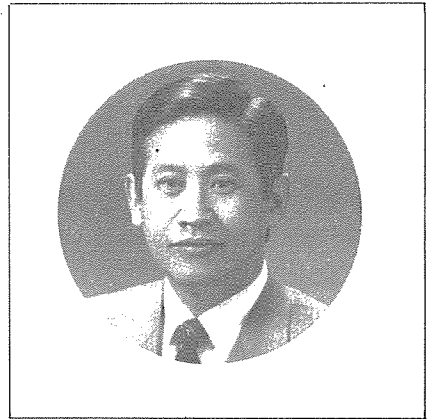
— 心理學에 대한 認識 개선에 힘쓸터

『心理學은 人文·社會 및 自然科學이 교차되는 영역에 위치하는 종합과학으로서 다양한 하위학문영역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학문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힘들지요.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心理學이 어느 영역이건 경험적인 자료에 근거한 실험적인 연구방법을 앞세운다는 점에서 심리학은 과학적인 연구접근을 실천하는 정통과학의 일원입니다.』

韓國心理學會 崔正薰 회장(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은 人間과 動物의 精神과정과 行動을 연구하는 심리학은 정신 또는 정신현상에 관한 학문으로서 철학 특히 形而上學안에 포함되었으나 19세기 이후 물리학·생물학·생리학 등의 성과를 기초로 하여 실험적 방법을 도입, 實證的 과학으로서 확립되었다고 소개한다.

心理學의 연구방법에는 크게 자연과학적 접근방법과 사회 및 인문과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날과 같이 급속히 변화하는 컴퓨터의 발달과 새로운 실험 및 통계적 연구방법론, 실험기구의 개발로 인해 심리학은 모든 하부영역을 컴퓨터와 최신 실험장비를 동원한 실험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實驗심리학은 심리현상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분야인 생리심리학·지각심리학·인지심리학 및 학습심리학등을 통칭하여 일컫는다. 이중에서도 지각심리학과 인지심리



◇ 崔正薰 회장

학 분야에서는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복잡하고 방대한 정보를 인간이 어떻게 처리하여 저장(기억)하며 표상구조를 구축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이들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분야일 뿐만 아니라 자연언어처리, 이미지처리 및 문제해결 등 人工知能분야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崔회장은 사람의 마음도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연구되어 질 수 있다는 견해가 심리학내에 확립되기 시작한 것은 정보과학, 전산과학, 신경과학과 언어학이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부터이며 이와 같은 認知심리학이 이들 학문과 學際的인 결속을 도모하여 認知科學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를 탄생시켰는데 인지심리학은 인지과학이란 커다

란 틀속에서 입체적으로 인간의 정보처리 원리를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을 얻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인지과학의 발전에 관건이 되는 인지심리학은 다가오는 情報 및 知識産業社會의 基幹학문으로서 점점 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본다.

『현재 인지심리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난해에는 한국인지과학회가 발족되므로써 가속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아직까지 전산 및 연구지원체계가 열악하고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정보 및 지식산업의 개발을 주도할만한 본격적인 규모의 연구가 수행될 수 없는 여건이지요』

崔회장은 심리학 특히 실험심리학 영역이 선진구미 각국에서는 순수 기초과학의 한 분야로써 확고한 자리를 굳히고 다른 인접과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상호 협력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도 심리학 교육 및 연구의 일천한 역사와 학술원의 학문 분류에서 철학분야에 일방적으로 분류된 이후 계속 인문, 사회과학으로 잘못 인식되어 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간혹 識者층에서도 심리학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학문」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을 볼 때 심리학에 대한 認識개선이 과학적인 이론체계의 정립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따라서 심리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學會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崔회장은 한국심리학회자료總에 가입하려는 이유중에는 바로 정통과학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과학기술유관단체들과 함께 우리나라 기초과학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料總회원단체의 일원으로서 인접과학분야 학자들과의 상호협력과 활발한 학술교류로 심리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게 심어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밝힌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심리학은 그 학문분야의 성질상 기초과학의 영역이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하며 사회과학의 영역 역시 그 독특성을 갖고 동시에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崔회장은 급속도로 변해가는 현대 사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심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학회의 역할을 재조명해 보고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작정이라고 말한다.

1946년에 창립된 이래 그 규모와 활동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해온 한국심리학회 는 지난 82년부터 인지심리학, 연구방법론, 임상심리학, 발달심리학 그리고 사회심리학에 대한 최신정보와 연구결과를 소개하기 위한 동계연수회를 해마다 개최해 오고 있는데 6회째인 87년부터는 「심리학 연구 방법론」에 관한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심리학 연구방법 총서」도 간행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현재 32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심리학회 는 산하에 실험 및 인지, 상담, 임상, 산업, 발달, 사회심리학 등 6개분과회를 두고 전문분야별로 연구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다고.

『그동안 실시해온 연수회를 계속해서 개최하는 한편 심리학의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하여 강연회·세미나 등을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심리학 지식 보급에 힘쓰고 국제간의 학술교류도 활발히 전개해 나갈 작정입니다』

崔회장은 心理學에 대한 인식이 하루빨리 바뀌어 우리나라의 심리학이 과학의 급격한 진보에서 소외되지 않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學會가 앞장서서 인접 관련학문과의 연계를 통한 心理學의 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한다. (權光仁記)